

#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 진단 등 주의해야 할 한방 의료 사고

■글/박미경(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팀) ■그림/이우정



**한의학은** 서양 의학과 달리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 즉 소우주로 간주해 진단하고 치료한다. 또한 균형과 조화를 중시해 음양의 균형 즉 부족하면 보태 주고 넘치면 덜어 주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침술·부항·뜸·한약 등을 처방하는 이러한 한방 요법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을 것이라 믿고 있으나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한방 의료 사고 사례를 소개한다.

##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으로 진단

조모 씨는 탈모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 의원에 찾아가 진료 후 한약을 조제 받았다. 한약 복용 후 피로감·식욕 부진·황달 증상이 나타나 한의사에게 알렸으나 계속 약을 복용하라는 말을 들었다.

2개월 더 한약을 복용하자 얼굴색이 노랗게 되고 피로해 양방 병원에서 간기능 검

사를 받았다. 그 결과, 급성 독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돼 한의원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처리 결과〉 처방된 약은 숙지황·구기자·황정·측백엽 등으로 간 독성을 일으킬 만한 약제는 없었다. 한약 복용중 이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중지나 정밀 검사를 협진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인정돼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약은 잘 먹으면 보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약이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한방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독이 없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병에 대한 처방이 적당하게 맞지 않으면 간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약재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먼지·중금속 등이 함유

됐을 경우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복용한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물을 중단하고 전문의에게 검진 받아야 할 것이다.

## 출산 후 요통 원인은 결핵성척추염으로 진단

이모 씨는 출산 후 요통 증상이 있어 한 의원을 방문하고 추나요법(손가락이나 손으로 질병 부위를 치료함)과 침술을 받고 한약을 처방 받았다.

치료 후 요통은 다소 호전되는 듯했으나 우측 하지 마비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아 한의사에게 알렸으나 안정을 취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5개월이 지나도 호전되는 기미가 없자, 다른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과 자기 공명 촬영(MRI 검사)을 받은 결과 결핵성척추염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사전에 정확한 판단 없이 치료한 한의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처리 결과〉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의학적인 방사선 진단 의무가 사실상 한의사에게 없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의사는 환자가 계속 치료 받았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한 추적 검사를 의뢰해



야 한다. 전원이나 협진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위자료를 배상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양방에서는 혈액 검사·방사선 촬영·조영술 내시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한 뒤 결과를 판독해 진단을 내린다.

한방에서는 중국 고대의 철학 사상으로 음양 오행설·장부학설(오장육부)·경락학설·사상의학으로 나누어 망진(望診; 신체 형태·안색·배설물 등을 보고 진단), 문진(聞診; 호흡·말소리·땀꼭질·냄새를 맡고 진단)과 문진(問診; 현재 병력·과거 병력·개인 생활사 등을 듣고 진단), 절진(切診; 진맥·환부를 만져보고 진단) 등의 기본 방법으로 진단한다.

서양 의학의 진단명은 한의학에서 부르는 진단명과 다를 수 있어 진단이 다르다고 오진이라 할 수 없다. 한방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상 증상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거나, 양방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한방의에게 진단명을 알려주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 근종 완치 처방 믿고 복용했으나 효과 없어

유모 씨는 99년 8월 6일 양방에서 자궁 근종을 진단 받고 한방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처방해 주는 약물만 3개월 정도 복용하면 근종이 완치된다는 설명을 듣고 3백50만원의 치료비를 내고 5개월간 한약을 복용했다.

그 후 유씨는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자궁 근종이 전혀 작아지지도 않았고 추가로 한 개 더 생겼다고 해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처리 결과〉 자궁 근종이 치료되지 않은 점과 치료 효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책임은 인정되나, 악화된 소견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치료비를 환불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 의료 판례

## 어깨 통증으로 침 맞은 뒤 균에 감염돼 죽음의 문턱 넘나들어

배관공으로 일하는 한모 씨는 한 달 전부터 어깨가 심하게 쑤시고 저려 약을 지어먹고 물리 치료도 받았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이를 본 친구가 “용한 한의사가 있다”고 해 찾아갔다. 한의사는 “어깨 근육이 뭉쳐 있으니 침을 맞으면 금방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어깨에 침을 여러 대 놓았다.

침술 효과가 있어서인지 어깨 통증이 가시는 듯했으나 다음날 고열이 나고 온몸이 굳어지면서 3일 후에는 침 맞은 부위에 고름이 나오고 의식까지 희미해졌다. 119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일주일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

원인은 침을 맞은 부위가 메티실린저항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의사는 원인 불명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한의사에게 균 감염을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배상토록 했다.



침 맞은 부위에 봉와직염(표재성 염증)과 급성 골수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한의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처리 결과〉 당뇨병이 있었던 김씨는 침술 시술 전 봉와직염과 골수염에 대한 증상이 없었고 한의원에서는 일회용 멸균 소독침으로 시술했다고 해 질병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피부 표층의 소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고, 당뇨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염증 발생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한방에서의 질병 치료는 약·침술·부항 등이 있는데 양방과 치료 방법이 다소 상이해 이를 이해하고 치료시 양방과 한방의 치료 기간 및 예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어깨 통증으로 침 맞은 후 골수염 발생

김모 씨는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술을 받았다. 침을 맞은 후 어깨 통증이 더욱 심해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 【소비자 주의 사항】

당뇨병의 기왕력은 많은 합병증을 발생시키므로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침술을 받은 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에게 조치 받아야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의사에게 알려야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